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안녕하세요. 저희는 둘째 대학 졸업식 참석차 미국 방문했습니다. 벌써 3학년이 되는 셋째 대학교 아파트로 이사해주고 8월 22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3월달에 편지를 보내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 이후 센터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저희 근황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센터에서 한국어 오전반을 마친 수마야가 학교를 마치고 웬일인지 오후에 다시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없었는데, 자신은 평생 칭찬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자신에게 한국어 공부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고 선생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빠는 러시아로 일하러 갔는데 돈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없고.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화만 내고, 엄마가 현재 상황을 너무 힘들어한다며,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 하며 또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그가 위로를 얻는 과정이길 기도합니다.



국경과 가까운 우리 옆 마을의 장을라이, 수마야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찢어지게 가난한 기구한 운명의 엄마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가는 장을라이, 닥카임, 싸히다를 마주쳤던 터여서 가슴이 저몹니다. 이리 가난한 동네마저 동네보다 더 가난한 가정을 받아주지 않고 밀어내려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야박하게. 이 아이들이 동네에서 밀려나 우리 센터로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지난 세월 정든 아이들과 그렇게 헤어졌던 경험이 생각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의 처지는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희망과 기쁨이 된다고 말해주는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엄마의 운명을 벗어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 대통령 상을 받아 공영TV 방송에 출연한 메디나가 방송에서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했다고 자랑스레 말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한국인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벅뚜르도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친구에게 자신은 무슬림이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거부하던 그가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저희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아이들 편지를 다시 읽었고, 행복하다고, 센터가 자신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 생각나서 울컥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대단한 세계라 했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자신의 목숨 바쳐 사랑한, 우주의 무게와 견줄 한 영혼 한 영혼을 땅 끝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들과 희노애락을 나눈다고 할 순 없겠지만, 아이들의 인생 한 모퉁이에서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고, 작은 행복에 일조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인생에게 이런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격했습니다.



4월 들어 학부모 세미나를 한 차례 더 했고 5월 단기팀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학부모(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센터 대청소를 했고, 캠프가 진행되던 어느날 아침 일찍부터 각 가정에서 주방기구를 센터로 가져와 음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까지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노래와 춤을 추어주셨습니다. 이 센터를 준비하며 가끔 말해왔고 항상 소망하는 이미지는 '천국잔치'였습니다. 잔치가 열리던 캠프 둘째날 학부

모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와서 이곳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소망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미국에서 아이들과 꿈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들과 바닷가에서 나눈 대화도 행복했고 오랜만의 가족여행도 특별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결국 잊혀지지만 이렇게 짧게라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행복에 만기일이 없어집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일방적인 마음은 아닐까, 부담이나 실례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꼭 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이 노래 가사를 머리속으로 되뇌어봅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지기를..."

기도해주세요

1.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가운데서도 현지교회를 더욱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2. 25-26 school year 계획을 짤 때 지혜주시고 스텝들이 채워지기를
3. 미주에서 만나는 분들과 모임마다 사역과 비전을 잘 나눌 수 있기를
4. 하람이 주영이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지혜주시고 길을 주시길

후원안내

<미주>

1. Check를 GP회사로 보낼 경우
Pay to : (GP USA) 그리고 Memo 란에 (K14, 윤재웅, 현순)
GP회사주소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2. Gpusa.org 에 들어가시면, GIVE 메뉴에서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메모란에 윤재웅 이름을 꼭 써주세요.

GP회사Tel : 714-774-9191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KEB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990-090820-517 (예금주 : 윤재웅)